

얼마나 아냐보다 실천이 중요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고, 선생이 선생 노릇 못하기 때문에 예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기고, 학생이 선생을 이기고... 이것은 지삼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세요, 자식이, 학생이 다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국가는 커다란 가정입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부모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일체중생을 놓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해주자는 발원으로 출가했습니다. 자기 일신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고 일체중생을 위해 출가한 것입니다.

인성 어렵게 하는 직업 피하라

목련존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구출했고, 고구려의 아도화상은 어머니 명령대로 했다고 해요. 신라 원광법사도 세속오계에서 효도로써 부모를 섬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대조사가 다 어머니 모셨어요. 30년 동안 생식을 한 어떤 조사는 어머니가 하도 악한 것을 먹으라고 해서 먹긴 먹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생식을 했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웃음거리 되죠. 효자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은혜 알고 은혜 갚는 이가 보살'이라 했어요. 능히 은혜를 갚는 자는 선업을 짓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능히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은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부모 은혜입니다. 부모 은혜는 양육하고 근심걱정해주고 회생하고 이렇게 모두 열 가지가 있는데, 열 가지를 다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면 보답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천지인명을 다 받들어도 부모님 섬기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극한 대효(大孝)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출세해서 조상 이름을 날리는 것이 대효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모도 중생이나 인과를 알게 해주고, 삼보를 모르면 삼보에 귀의하게 해주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대효라고 하셨습니다.

효는 곧 예의입니다. 예의는 남을 배려하고 부끄



정무 스님은 늘 '효'를 강조한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효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를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리와 도덕과 예법은 점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 무엇이 기대고 살겠습니까.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윤리와 도덕을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1966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 이웃 선생님한테 '一心正己(일심정기)'라는 글을 받았습니니다. 이 글은 '마음이 올바야 몸품이 올바'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은 안

됩니다. 육신은 개 같단도 못합니다. 정신이 중요한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 알고 은혜 갚는 이가 보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렵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몇 달러 가지고 삼니까. 인도나 방글라데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문문화는 검약 아니겠습니까. 검약은 쓸데없는 것은 안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하는 사람은 쓸데 있는 일을 못합니다.

자기 정신을 저리기 위해서는 예법이 있어야 할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



복권으로 인생 역전되나요?

결국 우리 동네, 그 나지막하고 아담하던 우리 동네에도 복권방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옛그제 버스 정류장에 나갔더니 그 앞에도 한 곳 생겼더군요. 가게 유리에는 지난 주 당첨번호와 이번 주 1등 당첨금이 24시간 반짝거리며 오가는 이들을 유혹합니다.

사실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1등에 당첨되면 내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갈까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더 고급동네에 살고 더 비싼 옷을 입고 훨씬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살아가겠지만 그제 내 인생에 어떤 '질 높은 변화'를 줄지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아난 존자와 함께 넓은 들판을 지나시다가 어느 밭두둑에 엄청난 황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난아,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독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습니다. 독사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독사입니다."

나뉘를 보내던 농부는 황금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난이시여, 정말로 독사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짜 흉악한 독사였습니다."

이런 외침은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왕에게 불려간 농부는 그 사연을 고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처님과 아난이 '독사다, 흉악한 독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일가친척이 모두 고통을 당하듯이 재물도 독사의 해악과도 똑같아서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큰 재물을 보고도 유혹을 당하였겠습니까?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대장엄론경' 6권)

그럼, 가난한 사람은 큰 돈도 만지지 말라는 법이냐며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덩어리를 독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요

요행으로 거머쥔 큰 재산은 맹독 품은 독사 한탕주의와 욕심·기득권 모두 한줌씩 덜자

때마침 그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부처님과 아난이 '독사, 독사'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독사가 있는데 저리를 난리람?'

농부는 확인하러 그곳에 갔더니 독사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는 황금빛 찬란한 금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농부의 눈이 튀었습니다.

"세상에나... 이 좋은 걸 독사라고 하다니..."

농부는 부리나케 황금덩어리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난에 지들어 입고 싶은 옷 한번 제대로 못 해 입었고 먹고 싶은 음식은 그저 상상 속에서나 떠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보니 이제 입شم이며 먹을 거리는 어느 부잣집 못지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쫓아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살림살이가 확 편 것을 못내 수상쩍게 여기고 있던 관리가 급기야 그를 끌고 갔습니다. 농부는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임자 없는 보물이라 생각해서 가져간 것이라며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통할 리 없지요.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졌고 결국 농부는 황금덩어리를 고스란히 빼앗기고도 사형대로 끌려갈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불안하고 억울한

행으로 거머쥔 큰 재산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망치는지를 일러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사실 복권을 사는 사람은 '그건 요행이 아니다. 며칠 지나면 풀거품이 되어버릴 게 뻔하지만 추첨하기 직전까지 맘껏 꿈꿀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심 이 한 장으로 인생이 역전하리라는 어마어마한 한탕심리가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 원 어찌 복권을 사서 천 원짜리에 당첨되면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아, 이런! 톤만 버렸네!"

적어도 복권에 있어서는 본전치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수백, 수천 배의 이득은 챙겨야 본전을 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복권입니다.

노력한 만큼 갖게 되는 정당한 부보다는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사회풍조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이미 소유한 권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이들로 바글거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생이 역전된다 한들 좋은 방향으로 역전되었습니까? 큰 재물을 바라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욕심과 기득권을 한 손가락씩이라도 덜어내는 일, 이것만이 맹독 품은 독사를 죽여 버리고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미형(중국경제연구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요 일 | 시 간 | 법 회 명 | 강 의 내 용 |
|-------|--------|----------|---------|
| 매주일요일 | 10-14시 | 일요가족법회 | 금강경강의 |
| 매주수요일 | 10-15시 | 목련사랑법회 | 화엄경강의 |
| ≡ | 10-15시 | 수능자녀기도 | ≡ |
| ≡ | 10-15시 | 지장경독송회 | ≡ |
| 매주목요일 | 10-15시 | 대비주기도회 | 예삼문강의 |
| 셋째화요일 | 14-17시 | 부산 · 동선회 | 주제별특강 |

◆ 등산법회 겸 태화산산신제

오는 11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우리절에서는 등산법회를 병행합니다. 수습역년에 걸친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간직된 아름다운 태화산에 올라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산신제도 함께 병행합니다. 등산복이나 캐주얼 차림,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산신제에 공양물을 올리시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곡》제13권 발간

등산법회와 태화산산신제에 즈음하여 우리절주지 중흥스님의 《일원곡》제13권이 발행됩니다. 이번 제13권에는 영산재작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국불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사연절안역본입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출가·재가를 가리지 않고 다 나누어드립니다.

◆ 고암대중사생신제

오는 11월 16일 화요일(음력 10월 5일)은 고암대중사의 탄신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우리절에서는 이를 앞당겨 오는 11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생신제를 병행합니다.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무 스님. 스님은 지금도 발일을 직접 한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인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지요. 그러면 그 돈 벌어서 어디 다 씀니까. 사치하고 낭비하죠. 이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 광명 환희 원만성취, 바로 이런 마음이 연(緣) 따라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자비심 내고, 부정한 것을 보면 정직한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것을 보면 지혜를 내고, 이렇게 인간 본성은 연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과’ 알게 해주는 것이 大孝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요. 맞는 말이지만 필요할 때는 귀천을 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품성을 회복하고 인성을 회복하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대약육(四大惡業)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인성을 모질게 하고, 거칠게 하고, 어둡게 하고, 타락케 하는 직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禮) 담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처님은 오계를 만드셨고, 원광법사는 세속오계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 요즘엔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야 할 가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는 인성을 해롭게 하는 직업은

버리고, 넷째는 시간과 돈을 일의 가치 순으로 쓰며(잘 써야 하며,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 다섯째는 음식은 자연식으로 하며, 여섯째 자연건강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함선 공부하는 불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참선을 하면서 무슨 해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선은 곧 인생공부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탐구하는 것인데, 사실 인생 공부는 벌써 끝났어요. 부처님 성도하는 순간에 일체중생이 다 성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평생 실천했지요. 바로 실천이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특성에 맞춰 찾아야 합니다. 글을 잘쓰면 글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으로 자기의 소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중생을 편하고 이롭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는 법을 모릅니까? 건강해지는 비결을 모릅니까? 안 해서 그런 것이기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포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런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요.

참선이나 철학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탐구입

니다. 인생이 무엇이나는 질문과 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 인생론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화두로 삼아 보세요.

살다보면 여러 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쫓으려고 하면 더 생깁니다. 그냥 놔두고 사비하지 마세요. 번뇌와 시비하는 것은 마치 못된 늑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 참을성이 부족해서 이것도 제대로 잘 안됩니다. 인내심 없이 이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참을성뿐만 아니라 화합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사는 지혜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자

세상을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기본 좋다고 생각하고 기본 좋게 사세요. 의식과 생각이 싸우면 생각이 이깁니다. 건강하면 그렇지 않든, 의식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이기는 것이니까요. 물론 실천이 어렵겠지만 ‘人不觀 聖不護(인불원 성불호)’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원치 않으면 성인도 굽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부처님 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하면 그렇지 않은 간에 행복하다 생각하고 봉사하며 사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장수하는 비결 중 꼭 들어가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만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둘째,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셋째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견성성불 생사해탈 진리실현에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무엇이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세요. 이 세상 을 때는 정신없이 왔지만 갈 때는 분명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정무 스님은 1931년 전북 임피에서 태어나 57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58년 은척사에서 정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법사로 대교과를 수료한 뒤 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정강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5하 안거를 성만했다.

1971~2001년까지 수원 용주사, 여주 신흥사, 이전 영월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안성 석남사에서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선곡 스님 (下)

선곡 스님은 선암사에 내려와 있다가 용성 스님이 함양에 농원을 내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청정수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함양으로 갔다. 농원에서는 백장의 선원청규를 따라 ‘하루 한 때라도 일하지 않으면 한 끼도 먹지 않는(一日不作 一日不食)’ 살림을 살았다. 스님도 3년간 농사짓고 좌선하며 용성 스님을 시봉했다. 그뒤 지리산 칠불선원(七佛禪院)에서 조실을 살았다.

이때 순천 선암사 칠전선원에는 선곡 스님의 은법사인 선파 스님이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 스님을 모시다가 칠전선원에 내려와 조실을 살다가 열반하였다.

선암사는 흔적 않은 육방살림(六房山林)의 전통이 있는 사찰이다. 전체를 여섯 덩어리로 나누



그림·명성

어 전각 자체가 특별한 가풍을 이어가는 별도 수행체계를 갖추어 생활하면서 그 여섯이 모여 하나의 총림체제(叢林體制)를 갖춘 것이다. 답마전, 미타전 등 일곱 개의 전각으로 이루어진 칠전은 출가한 지 30년이상 되는 구름남자들이 결계와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일년내내 안거에 드는 상선원(上禪院)으로, 스무 명이 넘지 않는 단촐한 살림을 살았다. 바로 오른쪽 옆 무우전(無憂殿)은 정암원(淨業院)이라 하여 늘임주나 대비주 등의 진언을 의무는 전각이다. 50여명의 수행자가 밤낮으로 진언을 영송하며 살았다.

칠전을 내려와 원통보전, 불조전, 장경각 등을 지나 왼쪽의 천불전(千佛殿)은 강원(講院)으로 40여명의 대중이 함께 살았다. 바로 아래 창파당(蒼波堂)은 도감원(都監院)으로 총림내 모든 행정 및 법회 등의 절차와 살림살이를 살피는 곳이다. 만일(萬日)은 열반원으로 만일열불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선암당(善慶堂)은 하선원(下禪院)으로 결계동안 열심히 정진하는 선정남자들이 모여 살았다.

각기 전각에는 별도의 조실(祖室)을 모시고 살았으며 공양간과 뒷간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일정한 독립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총림전체의

의사를 표하거나 밖에서 대표할 일이 있으면 칠전선원의 조실이 전체의 조실로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장(方丈)역할을 하였다.

선암사 스님들은 선파 스님의 다비를 모시고 얼마 안 있어서 칠불선원으로 선곡 스님을 찾아와 칠전선원에 머무르면서 남자들 지도해줄 것을 요청해 스님은 본사인 선암사로 향했다. 그러다가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서 절이 어려워지자 주지까지 맡아 살림을 살았다. 선암사는 산이 깊어서 낮에는 경찰이 무대로 삼고 밤에는 반란군이 무대로 삼아서 대중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대중들은 피란을 가고자 하였지만 스님은 대중들만 보내고는 혼자서 선암사를 지켰다.

그러자 밤낮으로 당하는 고생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낮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밤 달라고 하면 내주고, 밤에는 빨치산이 그러면 또 내주고는 하였다. 그런데 고마워해야할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경찰에게는 빨치산에게 밥을 해준 사실이 밀고 되고, 빨치산에게는 경찰에게 도움을 준 일이 고백되어서 양쪽에서 선

여순반란때 경찰·빨치산에 시달리면서도 가부와 안풀어

곡 스님을 못살게 군 것이다. 낮에는 경찰이 딱달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매질을 하였다. 사정없이 쏟아지는 못매를 맞으면서 스님은 다짐했다. ‘부처님 당시 포교제일 부루나 존자는 수로나 지방의 험악한 사람들이 불교를 전파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돌과 나무로 때려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무상한 인생을 중단하고 평안한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 때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사람들을 원망을 하지 않았다. 나도 부루나존자처럼 하리라. 아니 경허 스님처럼 매를 맞으면서도 좌선하는 자세를 풀지 않으리라. 수행자는 앉으나 서나 어떠한 경계가 오히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내 그것을 제자들에게 늘 말해 왔는데 이번에 내 스스로 그것을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는 몽둥이질에 밀려서 이리저리 구르면서도 거부좌한 다리를 풀지 않았다. 도망간 상대편들의 간 곳을 대라고 매질해도 아무 말없이 좌선만 하고 있자 매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 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은 그 불편부당한 마음에 감동해서 풀어주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상황이 좋아지자 선암사에는 다시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상초유의 승단분규 즉 법란을 겪으면서 수행자언 하는 이들을 엄하게 꾸짖고 초연하게 도량을 지키면서 남자들을 제정했다. 1968년 제자들에게 ‘해가 뜨니 서방을 비추고, 달이 떨어지니 서방을 떠나는구나(日出照西方 月落離西方)’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관악산 자운암 상림법사

30여년 孝 바로 세우기 법문

정무 스님은 정무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효다. 그리고 효 사상을 바탕으로 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30년 전 용주사 주지로 있을 때 부모은중경탑을 세우고, 현재 주석하고 있는 석남사에도 작년에 똑같은 탑을 세웠다. 언제 어디서나 ‘효’에 대한 설법도 빠지지 않는다. 바르게살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신념 때문이다. 항상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며 제자들에게도 엄격한 수행과 노동을 강조하지만, 신도들에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따뜻하다. 1968년 영주포교당에서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도수련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도 처음으로 여는 등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정무 스님은 1931년 전북 임피에서 태어나 57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58년 은척사에서 정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법사로 대교과를 수료한 뒤 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정강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5하 안거를 성만했다.

1971~2001년까지 수원 용주사, 여주 신흥사, 이전 영월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안성 석남사에서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충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탐,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몰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탐-카주라호-아그라-싱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나
- **인도, 네팔 첫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몰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탐-아그라-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첫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첫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 21세기 정신세계의 대혁명 >

대 자유인이 되는 길

인류의 정신세계를 끊임없이 지배해 온 종교적 무지와 맹신을 남김없이 몰아낼 수 있는 혁명적 가르침.

깨달음이 실종된 전리의 암흑시대에 구도자를 참된 길로 이끌어주는 명쾌한 지침서.

도서출판 다나 / 신국판 287쪽 / 값 10,000원

해공선생과 함께하는 위빠사나 명상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 장소 : 정신세계원 (02-747-7033)